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태국 국회 대표와 유럽의회 자유무역연합위원회 (Parliament Committee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참가한에서 화상회의 (Virtual Meeting) 에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입력 2020.11.23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13.30 시에 추안 립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은 국회의사당 2층의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화상회의 (Virtual Meeting)를 참석 중인 태국대표단과 유럽의회 자유무역연합위원회 (Parliament Committee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대표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화상회의에는 안와 싸래 하원 상업과 지적재산권위원회 위원장, 워라셋 칼띠난 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쑤텡 우언 하원 노동위원회 위원장, 잇싸라 쉐리왓타나윳 하원의원, 헬레네 버리커 아티다 (Helene Budliger Artieda) 주태국 스위스대사, 키얼스티 러사먼 (Kjersti Rodsmoen) 주태국 노르웨이대사, 추안 릭파이 국회의장 겸 하원의장을 비롯한 태국 국회의원, 하원의장 비서, 하원사무처 고위직들이 참가했다. 유럽의회 자유무역연합위원회 대표들의 화상회의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며 양측은 보다 밀접한 유대 관계를 증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추안 릭파이 의장은 올해초, 태국과 세계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발생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를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화상회의는 “새로운 일상” 이라는 생활 방식이 되었음을 의미하여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든 우리에게 닥친 장애물을 걷어내고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안 릭파이 의장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포괄적인 양측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고 무역과 투자분야의 경우 2005 년과 2009 년 2 번에 걸쳐 자유 무역 협정을 협상했으나 이후 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7 년 동안 협상이 2 번이나 중단되어 아쉬웠다고 했으며 2019 년 3 월 총선거 이후 다시 협상은 재개되었고 EFTA 회원회가 2019 년 12 월 태국 상무부에 문서를 보내온 것에 대해 반가움을 전했다. 그리고 국내 및 국제적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경제 및 보건 분야를 살펴보고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 가기 위한 상무부의 자료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를 비추어볼 때 태국 의회는 정부를 지원하고 EFTA-태국 자유 무역협정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때 이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입법부에서는 투자 뿐만 아니라 국회 간의 상호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해서 국제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서로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 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안 릭파이 의장은 가까운 장래에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협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번 화상회의를 계기로 미래 상호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양측의 의견, 견해 그리고 경험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안와 싸래 하원 상업과 지식재산권위원회 위원장은 태국과 EFTA 는 특히 원재료, 재생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의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확신했다. EFTA 와 태국 국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국 국회, EFTA, 태국 국민과 EFTA 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화상회의 이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상호 이익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았다.

워라쉴 칼띠난 산업위원회위원장은 이번 태국 국회의 자유 무역 협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 협조와 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EFTA 시행한 이후 특히 제조업 부문은 경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호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쑤텡 우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이번 화상회의가 노동위원회와 자유무역연합위원회간 협력과 노동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자의 이동과 노동자 복지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분야의 변화와 관계를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